

전남에 지식정보문화 10개 기업 투자

온소프트·PTW코리아 등 시스템 SW 개발, 게임 등 제작 2026년까지 129억원 투자...청년일자리 183개 창출 기대

지식·정보·문화 관련 기업 10곳이 2026년까지 전남에 투자를 한다. 이들 기업은 모두 129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83개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27일 "최근 신규 창업하거나 전남지역으로 이전한 지식정보문화 10개 기업과 서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나주에 등지를 둔 ㈜온소프트, ㈜PTW코리아, ㈜눈보라엔터테인먼트, ㈜에스엠소프트, ㈜비알이다, ㈜의성 등 6개 기업은 협약에 따라 61억원을 투자해 118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통해 소프트웨어 분야 지

역 특화 비즈니스 모델 정착과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엑스플랜트, ㈜에이오코리아, ㈜크레딧 등 3개 기업은 목표에 53억원을 투자해 59명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한다. 응용·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과 모바일 게임 서비스, 실감형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로컬엔컴퍼니는 순천에 15억원을 투자해 지역에 특화된 영상 및 문화콘텐츠 개발에 집중한다. 오는 4월 1일 개막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에 관련 콘텐츠 기획과 상품 제작 유통에 나선다.

전남도는 앞선 민선 7기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성장 동력인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등 지식정보문화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비전 아래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식정보문화산업 분야 보조금을 신설하고 지금까지 총 141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했다. 그중 76개 기업이 투자 실현을 통해 19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거뒀다.

유현호 전남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식정보문화 분야는 타 산업에 비해 청년이 선호하는 콘텐츠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다"며 "앞으로 도내 기업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식정보문화기업도 고민 없이 전남을 선택하도록 적극적인 유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화순 삼천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강정·삼천리 일원 0.826km²...2025년 3월까지 2년간

전남도가 화순 강정·삼천리 일원 삼천지구 0.826km²(704필지)에 대해 2025년 3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은 화순읍 시가지와 연계해 있어 개발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전 부동산 투기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많아 투기적인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됐다.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 반드시 화순군수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행 방법으로 거래

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순군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을 불이행하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김승태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화순 삼천지구 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 우려 지역을 모니터링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중장기 용수 공급 대책 추진

해수 담수화·관정 개발 통한 수자원 확보...공장 하·폐수 재이용 등

전남도가 항구적 가뭄 예방을 위한 중장기 용수 공급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50년만의 기록적인 가뭄에 대응해 당장 시급한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 발생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용수 공급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공업용수의 대책 수자원 확보 방안으로 해수 담수화, 관정 개발, 운반급수 등에 144억 원을 긴급 투입, 물 부족 문제 해결에 총력을 쏟고 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양수장 정비, 관정 개발 및 준설 등에 80억 원을 지원하고, 영농기 대비 저수율 50% 이하 저수지에 물 채우기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여수산단 공장 정비 시기를 조정해 공업 용수 수요를 줄이는 한편, 생활용수 절감 시 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정책 등도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 물 공급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노하·보길, 약산·금일 간 광역상수 해저관로를 건

설해 섬 지역을 연결하고 영산강 농업개발사업을 조기 추진키로 했다. 또 광양만권 보조수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공장 하·폐수를 재이용하는 시설도 추가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지역 강수량은 846mm로 평년(1390mm)의 60%에 그쳤고 올해 강수량(1-3월)도 평년의 78% 수준인 120mm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 생활용수 저수율은 광역상수도 수원인 광역댐 4개소의 경우 23.0%, 지방상수도 60개소는 41.2%를 기록하고 있다. 농업용수 저수율은 나주·담양·광주·장성호 등 4대호의 경우 37.9%로 나머지 저수지까지 포함하면 54.7%를 유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는 연말까지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남도는 '무강우'까지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

3년 3월 27일(월) 오후 2시 | 장소 |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다목적홀 | 주최 | 국회의원 양항자, 국회 법제



호남권 반도체특화단지 육성 입법지원 토론회 27일 오후 광주시 북구 GIST 오룡관에서 호남권 반도체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가 열렸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광주 월드컵경기장·우치공원에 전기차 충전기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선정...연말까지 79곳에 인프라 구축

광주시는 "환경부가 공모한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에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에 '광주시 EV투어 문화관광 트렌드 조성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과제로 참여했다.

총사업비 58억원(국고보조 20억원, 민간투자 38억원) 규모이며, 시민이 자주 찾는 월드컵경기장, 우치공원, 공영주차장 등 79곳에 초고속·급속·완속 등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226기를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가 충전기 설치장소를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는 자부담으로 지정 장소에 충전기를 설치한다.

설치규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는 방식으로 광주시는 별도 투자없이 부족한 충전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브랜드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산하기관과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대상을 사전 확보했으며, 공모를 통해 풍부한 경험

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공동참여 사업자도 선정했다.

이번 공모 보조사업자인 '이지차저'는 4월 현장 조사, 5월 각 기관별 급속 및 완속충전기 설치 등을 거쳐 12월까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구축된 충전시설은 보조사업자가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관리한다.

이정신 광주시 대기보전과장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 선정으로 전기자동차 기반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고, 국비 유치로 58억원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돌봄이웃 시설 실내공기질 무료검사

보건환경연구원, 라돈·총부유세균·부유곰팡이 등 3개 항목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4월 한 달 동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웃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적용되지 않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무료검사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실내공기 오염은 시설 이용자가 많고 실내 환기가 부족한 경우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추진됐다.

검사는 1급 발암물질인 라돈과 실내에 떠다니는 총부유세균, 부유곰팡이 등 3개 항목을 측정한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 부유곰팡이 검사를 추가했다. 부유곰팡이는 호흡기 질환 및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를 희망하는 시설은 광주시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과(062-613-7516-7517)로 신청하면 된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에도 돌봄이웃이 생활하는 시설을 조사했는데, 다행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곳은 없었다. 서광업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도록 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권 밖의 시설에 대해 먼저 다가가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